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다



저자: E. Duncan Hughes

삽화: Janie Forest

각색: Ruth Klassen

번역: Koh Woon Choi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07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모세는 하늘 나라로 갔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를 지금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다.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를 준비시키기 전에, 그는 자신 먼저 준비해야만 했다. 하나님은 만약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약속하신 땅에서의 승리와 번영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약속했다.

지혜롭게, 새로운
지도자는 여리고의
매우 큰 도시의 방어를
공부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다. 이스라엘의
첫번째 싸움은
그곳에서 있을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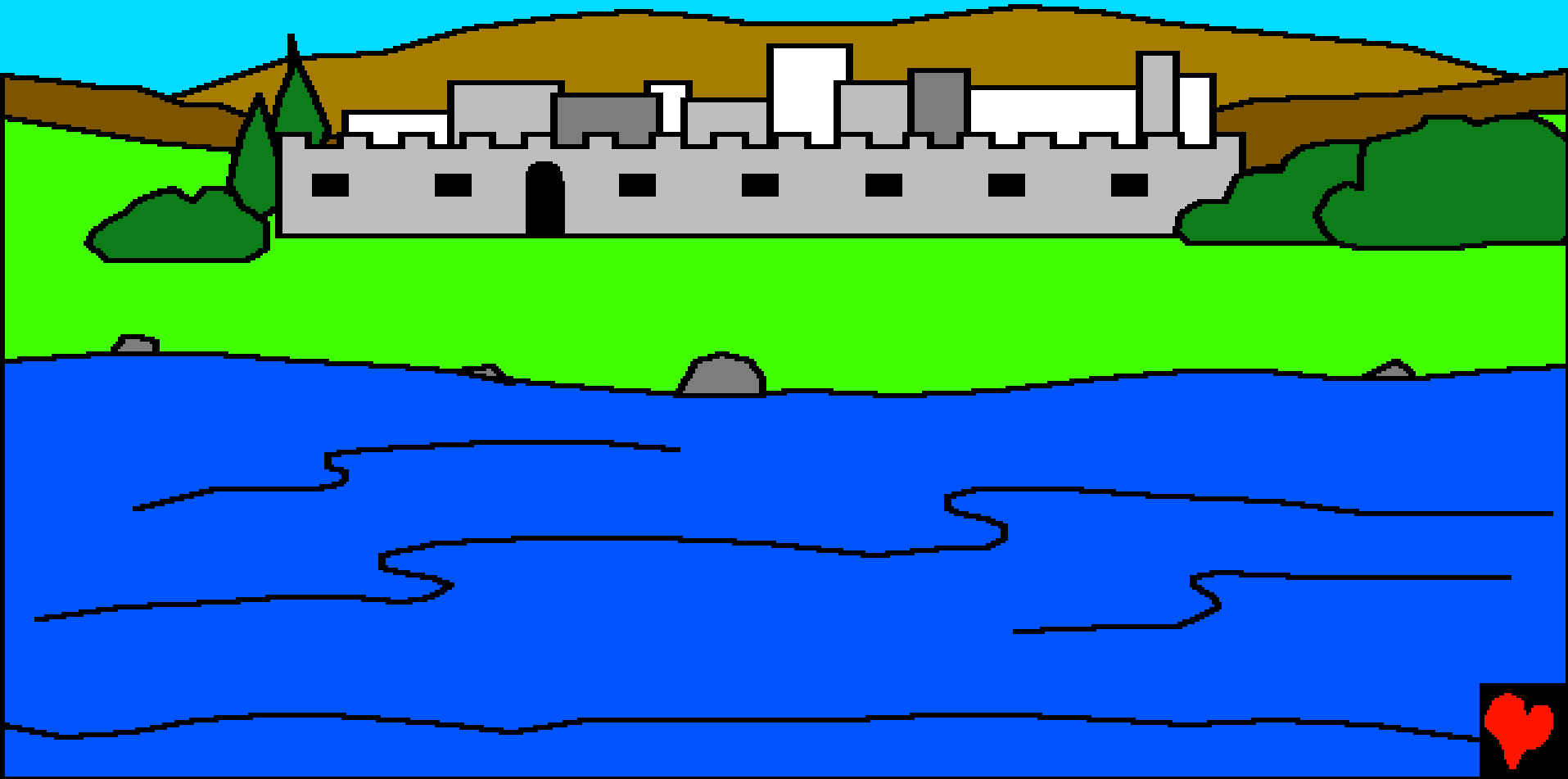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도시 안에 정탐꾼이 있다고 말했다. 왕은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 그의 군대를 보냈다. 조사는 정탐꾼들이 머무르고있는 라합의 집에서 시작됐다. 군인들이 라합의 대문을 거칠게 두들겼다. 라합은 빠르게 그들을 지붕위로 숨겼다.



군인들이 떠났을 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성벽 밖으로 안전하게 내려 주기위해 주홍색 새끼줄을 사용했다. 왜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왔을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라합의 목숨을 살려 주시기를 원했다. 정탐꾼들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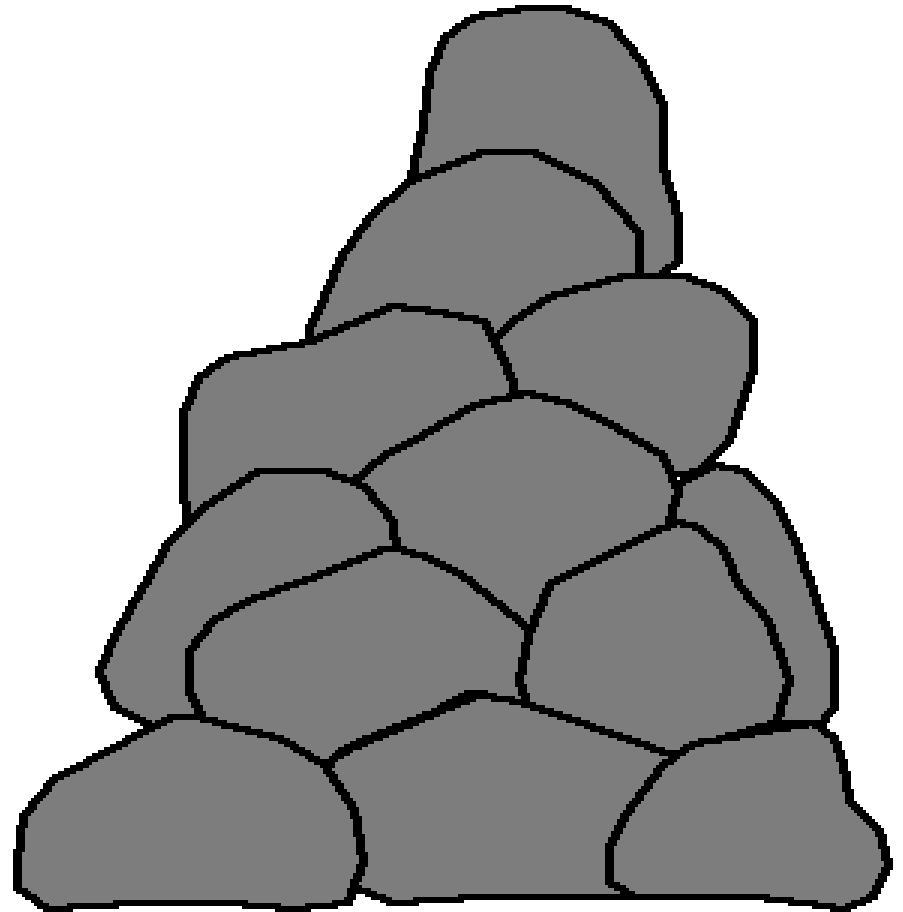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다. 하지만
다리가 없었다! 그들이 어떻게 건넌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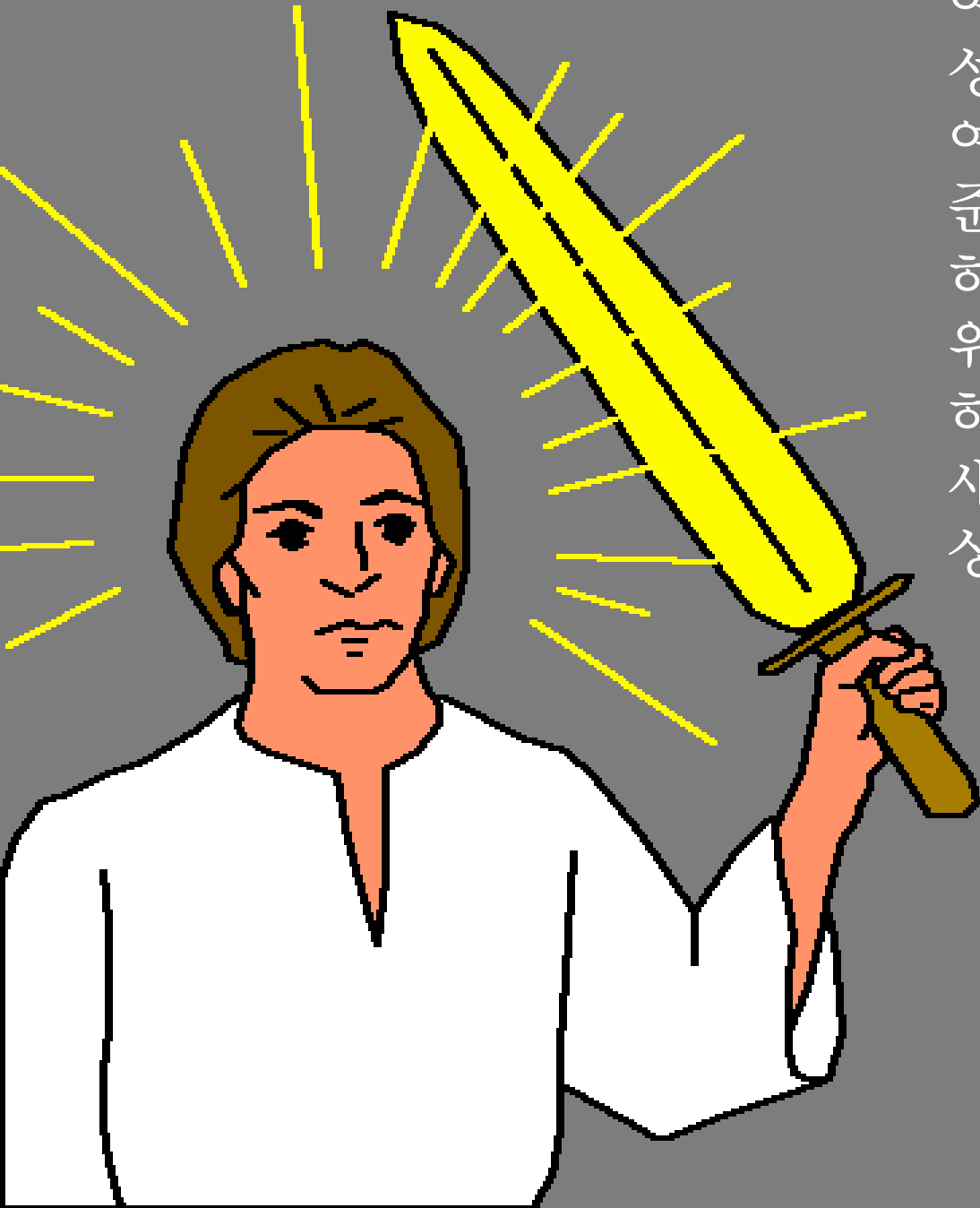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언약 궤를 옮기도록
군인들과 사람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강의 유역에 서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물 사이로 길을 만들어 주셨다.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후에, 그들은 강바닥에 열 두
큰 돌들과 가나안의 강둑에 다른 열 두 큰 돌들을 놓았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념품이었다.





여리고는 강하고,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의 공격을
준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천국으로
부터 그의 군대의
우두머리를 보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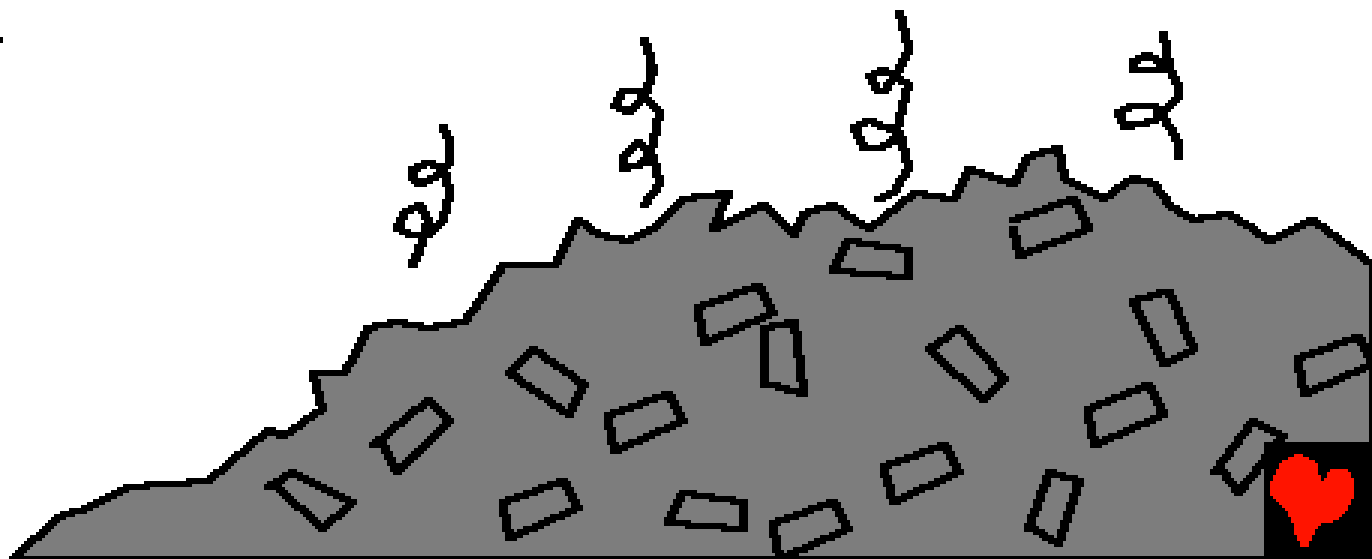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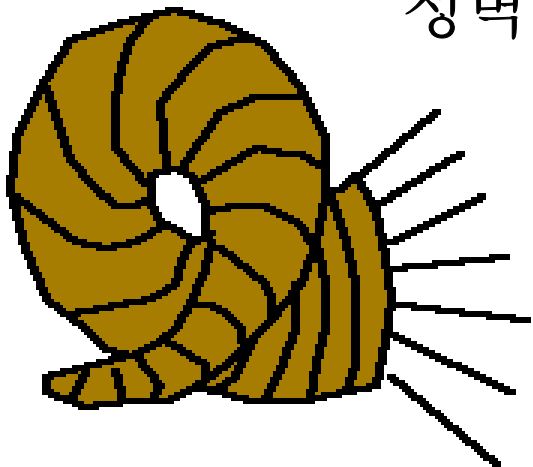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공격할 방법을 말씀해주셨다. 그것은 매우 이상한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행진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소리쳐야 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은 납작하게 무너져 내려질 것이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행했다.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던 7번째 날에 7번째 행진을 마친 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처럼. 여리고의 큰 성벽이 산산조각이 났다.

7





성벽 안의 오직 라합의 집만이 안전했다. 라합은 창문으로부터 걸려있는 주황 새끼줄을 놔두었다. 빠르게, 여호수아의 사람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조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사라졌다.





여호수아는 거룩하게
여리고의 금, 은, 보석들을
하나님의 예배에 바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악한 도시를 다시 건설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다. 곧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리고를 패배
시켰는지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신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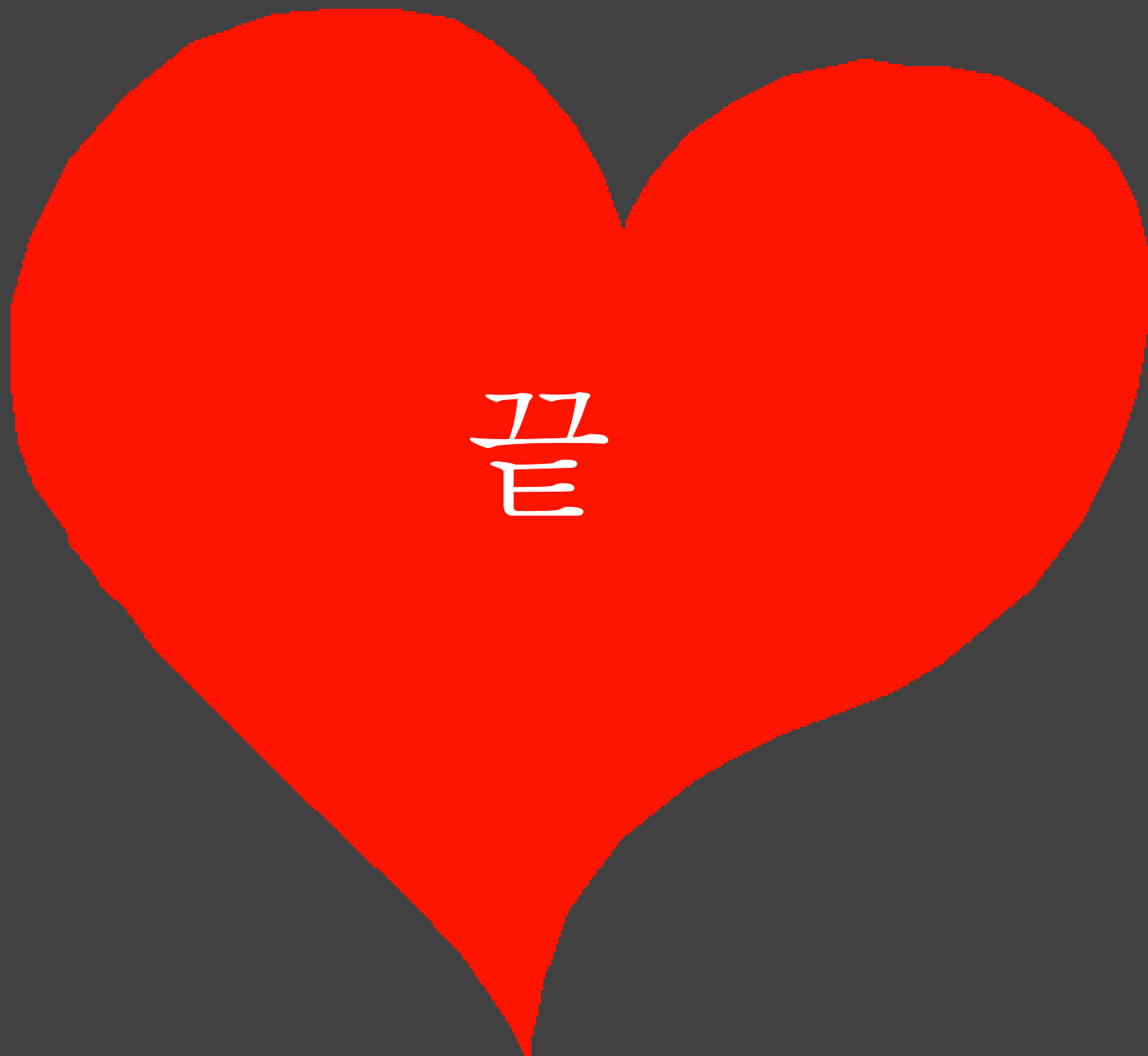
인간의 비애의 시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6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